

2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808.21 (+65.47)		826.87 (-0.28)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800 (-0.030)		1384.40 (-1.70)

中 낸드플래시 대규모 투자 ‘공세’ 삼성·SK, 차세대 제품 전환 속도

YMTC, 6.8조 규모 자금조달 추진
삼성전자, 9세대 V낸드 전환 박차
SK하이닉스, 中 현지공장 투자 확대

중국 낸드플래시 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낸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 생산거점 고도화와 차세대 제품 전환을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YMTC의 모회사 CCSI는 최근 상하이 쿵광판에 IPO 신청서를 제출하고 330억위안(약 6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 자금 가운데 208억위안은 생산라인 개선에, 122억위안은 차세대 낸드와 고속 저장장치 R&D에 투입할 계획이다.

YMTC의 시장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낸드 비트 출하량 기준 YMTC의 점유율은 14%로 집계됐다. 삼성전자(25%)와 SK하이닉스(22%)에 이어 3위다. 키옥시 이를 제치고 처음으로 글로벌 3위권에 진입한 것이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낸드 시장의

성장축이 기업용 SSD(eSSD)로 이동하는 점도 변수다. 2분기 eSSD가 전체 낸드 비트 출하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48%로 전년 동기 26%에서 22%포인트 높아졌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글로벌 낸드 매출이 전년 대비 37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낸드 생산거점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X2 라인을 중심으로 9세대 V낸드 전환 투자를 추진 중이다. 280만대 제품인 9세대 V낸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양산을 위해 식각 공정용 설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중국 다롄 2공장에 대한 설비투자를 재개했다. 다롄 2공장은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을 인수하면서 확보한 생산거점이다. 회사는 시장등을 고려해 그동안 투자를 보류해왔지만 최근 식각 등 신규 장비 투입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까지 월 3만장 규모의 낸드 생산능력을 갖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 생산거점은 양사의 전체 낸드 생산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생산량의 약 40%, SK하이닉스 다롄 공장은 약 30%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투자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4654억원, SK하이닉스의 다롄 공장 투자액은 52% 늘어난 4406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YMTC의 출하량 증가가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 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YMTC는 비트 출하량 기준 3위까지 올라섰지만 상대적으로 소비자용 제품 비중이 높아 매출 기준으로는 선두 업체들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첨단 장비와 기술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국 기업은 계속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인재 투자를 통해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낸드 시장은 저장용량 수요 증가로 계속 커지고 있고 향후 고대역폭플래시(HBF) 등으로 기술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낸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 업체들이 현지 시장에서 약진하면 중국 내 국내 기업 공장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고부가 낸드 투자 등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26일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와 마루공원 일대 모습.

/뉴시스

정부, 7.3만가구 신규 공공택지 ‘용산공원·서울 그린벨트’ 제외

김윤덕 장관, 오세훈 시장 회동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안 논의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더해 연내 추가 발표할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에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용산공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서울시가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또 다른 대안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 뒤 “추가로 발표하는 그린벨트 7만3000가구는 경기도에만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8·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0만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에서 공급할 2만7200가구를 제외한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는 연내 공개한다고 밝혔다.

추가 택지로는 하남·고양 등 경기권 그린벨트가 거론된다. 서울시는 녹지 보전을 이유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도 지자체와의 협조를 고려해 서울 지역은 후보지에서 뺀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2차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용산공원 역시 연내 발표할 신규 택지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협의는 이어간다. 정부는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국가공원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 개정과 미군기지 반환, 토양오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도 단기 공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에서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는 39만3000㎡로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보다 넓다. 서울시는 시설을 이전한 뒤 부지 절반가량에 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첨단산업·연구개발(R&D) 시설을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관련 용역을 마치고 현재 민간사업자 적격성을 검토 중이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이 가깝고 수서역에서는 고속철도와 GTX-A,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 강남업무지구 접근성이 높고 탄천과 공원 등 주변 주거환경도 갖췄다. 다만 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와 비용, 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 방안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김 장관은 회동 후 “탄천물재생센터를 검토 요청이 제일 핵심적인 것 같다”며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으면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를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metro

李 대통령, 재계 소통 강화… 반도체 산단·대미 투자 등 테이بل

이재용 회장 등 총수 연달아 회동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고, 이번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미(對美) 투자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재계와의 소통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태원 회장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재용 회장은 이날에 비공개로 면담하고, 곧 정의선 회장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및 퍼지컬 AI(인공지능)·모빌리티 시장을 이끄는 기업 총수들과 연달아 만나는 것은 AI 패권 경쟁 속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월 말 발표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의 경우 기업의



투자 금액이 수천조원이 넘어서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손발을 잘 맞추기 위해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란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중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이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며,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 재계의 요구 사항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선 회장과의 회동에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9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9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AI·로봇·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은 삼성과 SK를 상대로 미국 내 메모리 투자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같이 요구하자, 일각에선 대미 전략투자 1호가 반도체 분야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논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국내외 투자를 동시에 이어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정부 역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협상에 임하기 위해 재계와의 소통을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재계 총수 회동은 ‘비공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연쇄 회동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확인해주지 않았다. 만남을 공식화할 경우 정부와 기업 양측 모두 핵심대화 대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성공 개최 토대 마련
- ▲ 국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신상 공개하라… 피해자 이름 안 쓰겠다”

- ▲ 與 “‘물염치 극치’ 이진숙 응징… 제명 징계 절차 다각도로 모색”
- ▲ 정점식 “李, 경찰청장 임명 미루는 건 직무유기… 경찰개혁안 마련 착수”



- ▲ 조국혁신당, 박근혜 국힘 연찬회 참석에 “국민 모독 행위”
- ▲ 대법원장 두고 여야 설전… “조희대, 사법부 정쟁 한가운데로 몰아” vs “與가 몰아넣어” (사진 뉴시스)